



위험관리 중심역할은 火保協會가 담당해야

1. 머릿말

“위험 관리”란 학문은 1960년 대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發芽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기업에 의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것도 주지하다시피 주로 보험업계의 리더십 아래서였다.

그러나 세계에서 위험 관리가 가장 발달되었다는 미국에서조차 위험 관리는 아직 “보험 관리”라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에서도 보험 기업이 얼마나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하느냐의 여부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이것이 소개된 것은 1975년경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국의 경우 보험 업계가 당국의 행정 지시를 받아 공식적으로 이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의 일이다.

이같은 기록으로 보아 위험 관리는 대단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것이 왜 근



이 승 위
(본협회 총무부장)

래에 갑자기 우리 나라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만능약” 역할을 하는 기업 경영의 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더구나 우리 나라 손해보험업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위험 조사”, “위험 관리”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점도 또 하나의 의문이다.

2. 안전점검과 위험조사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국의 손해보험업계에서 현재 하나의 표어와 같이 내세우고 있는 위험 관리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간단히 고찰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위험 관리라는 학문과 그 실천 역사는 매우 짧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며 학자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범위 축소의 해석에서 범위 확대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개념이 천차 만별이다. 가령 혹자는 이것이 “방재”(loss prevention)라는 용어가 새로운 탈을 쓰고 등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도 획기적이지 아니라고 극히 축소지향적인 해석을 한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보면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안전 점검은 그 주목적이 방재라는 점에서 위험 관리를 위한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당국의 종용으로 시작되었건 아니되었건 간에 현재 손보업계

에 형성되어 있는 위험 관리의 주목적은 이를 통한 영업, 특히 해외 출수재 역조 현상의 개선에 있다는 개념이 은연중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안전 점검과 위험 조사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우선 안전 점검의 주목적이 방재라면 위험 조사는 합리적인 보험 인수와 적정 보유, 그리고 피보험자의 위험 관리 업무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체크에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자는 관계법규를 중심으로 한 시설의 적법성 여부 체크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적법 여부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시설 현황을 조사, 보험 자료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자는 특수 건물의 보험 요율 산정 조사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후자처럼 화재보험 및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보험 인수 및 보유 결정을 위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점검시 화재나 폭발의 경우 예상되는 최대 손실 평가는 하지 않으나 위험 조사시에는 이것이 매우 주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위험 조사는 현재 대상물의 상태가 부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판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데 주목적이 있다. 지면 제한으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으나 양자와의 차이는 보고서 양식을 자세히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3. 위험관리의 한계성

우리말의 “비상구”가 중국어

로는 “태평문”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우리 민족은 좀 신중하고 여유를 가져야 하겠다. “위험 관리”가 만능약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모 보험 그룹이 이재 후 EML과 비교해 보니 10%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예를 들려주고 싶다. 위험 관리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문 닫는 보험회사가 어디 한둘인가?

위험 관리 기법은 연구와 경험과 적용의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개발·발전되는 것인만큼 기법 연구도 없이 성급히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기업은 경제성을 외면할 수 없는 데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대상 물건마다 일일이 위험 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업비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세대당 보험료 3천원 정도의 아파트를 10만원씩이나 들여 위험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은 자연히 제한되는 것이요 각회사의 형편에 따라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최선책이다.

미국의 경우 대회사를 제외하고는 보험 회사마다 엔지니어를 두어 위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많은 회사들은 그들이 가입한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말하자면 풀로 이용한다. 회사마다 교육 시설과 교육 실시 스태프를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아도 낭비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출수재에는 제한성이 있다. “나쁜 물건”만 자꾸 내보낸다면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주는 대로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상대성”이 있음을 기억하여야겠다.

4. 화보 위험조사의 방향

여기까지 말했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안전 점검과 위험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 방법은 그 나름대로 상이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왜 양자를 합하여 통일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며 필자의 사견으로는 장차 화보의 기술 업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안전 점검의 근원이 되는 특별법의 정신, 인력의 부족 등 제한이 있어 이를 실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험 관리, 위험 조사의 기법은 기본적으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또한 경제성을 감안할 때 특수 건물 중 일부만이 위험 조사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협회가 일종의 위험 관리 기술 풀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화보 협회의 장래도 그 방면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맺는 말

위험 관리의 이론을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적용은 매우 힘이 든다.

화보 협회는 이 방면에 있어서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경험과 그간 얻은 know-how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위험 관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